

국민연금기금, 현재 697조원 적립

올해 6월 말까지 수익률 7.19% · 누적 수익금 340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 운용본부는 2019년 6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전년도 말 대비 약 57조 9천억 원 늘어난 696조 6천억 원(잠정)에 이르렀으며, 운용수익률은 연초 이후 7.19%,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5.43%(잠정)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6월 말 현재 금융부문 투자자산의

평가액은 기금 적립금의 99.9%인 695조 9천억 원이며, 기금 설치 이후부터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340조 원(잠정)에 이른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의 각 자산군은 국내주식이 6.93%, 해외주식이 19.85%, 국내채권이 3.00%, 해외채권이 9.58%, 대체투자 자산이 4.20%의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상반기 운용수익률

7.19%를 나타낸 것은 미국 및 중국 간 무역분쟁 우려에도 글로벌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및 해외 주식시장이 미중 무역협상 진행과 완화적인 글로벌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아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국내주식 자산군의 경우 7% 상당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해외주식은 20% 수준에 이르는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내 및 해외 채권시장의 경우 글

로벌 경제 지표 부진과 국내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으로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냈고, 이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 국내채권 자산군은 3%대, 해외채권은 9%대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한편, 연중 대체투자 자산의 잠정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및 배당 수익과 환율 변화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에 따른 것으로, 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윤상기자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세 지속

차례상 차림비용 전주대비 전통시장 0.5% · 대형유통업체 1.9% 내리

추석 명절을 약 2주 앞둔 8월 28일 기준,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 22만7,497원, 대형유통업체 30만9,820원으로 각각 전주 대비 0.5%, 1.9% 하락하여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8월 21일(수)에 이어 8월 28일(수)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28개 품목) 소비자가격을 조사했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주 대비 쇠고기·계란 등 축산물과 배추·무 등 채소류가 소폭 상승한 반면, 사과(홍로)·배 등 과일류는 하락하였고 쌀·참깨는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0년간 추석 성수품 가격을 분석하여 올해의 성수품 구매가격을 발표했다. 채소류(배추·무 등)와 축산물(쇠고기 등)

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추석 1~2일 전)를 피해 각각 추석 3~5일전, 4~6일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과일(사과·배)은 선물세트 등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추석 6~8일 전에 구입하는 것을 권장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할 계획이며(평시) 5,188톤/일 → (대책기간) 7,063톤,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직거래 장터, 농협·산림조합 직매장 등 성수품 구매 장터를 개설(2,690개소, 10~50% 할인)하고, 공영 흡소점의 명절 성수품 판매 방식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aT 김권형 수급관리처장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탐과 정성을 들여 키워낸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우정청, 펀드판매 1주년 기념 사은행사 펼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정창림)은 9월 2일 우체국 펀드판매 첫 돌을 기념하여 대교과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하여 지난 해 9월부터 전국 223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판매상품은 공모펀드 중 원금손실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펀드 및 주식 비중이 3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판매보수가 비교적 낮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상품 역시 MMF, 채권형펀드 및 채권혼합형 펀드 등 총 8종으로 안정적이며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구성했다.

특히 금리 인하시기에 투자하기 적합한 일반채권형 펀드와 주식 하방 방어력을 갖춘 가치주·로유볼(주식 등락폭이 낮은 종목)·대형주 등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추가하여 투자자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규 판매하는 펀드

의 운용사와 함께 제휴이벤트를 진행하여 신규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사은행사는 9. 2.부터 10. 31.까지(2개월) 진행하며, 새롭게 추가되는 신상품(8종)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 금액별 상품권을 지급하고, 100만원 이상 가입고객 120명을 대상으로 금 3.75g(골드바), 축하케이크 쿠폰(3만 원 상당)을 추가 증정한다. 또한, 기간 내 우체국 인터넷뱅킹 펀드몰을 통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정창림 청장은 "우체국이 지난 1년 동안 펀드사업을 통해 금융소외지역의 투자접점 확대와 시민의 자산형성 지원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체국 펀드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펀드를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과 판매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지역 총괄우체국이나 우체국 고객센터(☎1599-1900)로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김승환 교육감, 농협은행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29일 NH농협은행의 애국펀드라 불리는 'NH-이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 가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보호발전에 적극 대응하는 취지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을 갖춘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100% 민족자본의 범농협 계열사가 이 펀드의 취지에 동참하여 300억원

가량의 초기 투자금액을 제공했으며,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운용보수의 50%를 공익 기금으로 적립하여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일본수출 규제로 전북 수출도 많이 감소하여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다"며 "필승코리아라는 이름처럼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국 펀드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 농촌현장지원단, 취약농가 주거환경 개선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부안군 지부(지부장 배인태)·변산농협(조합장 신왕철)·농촌현장지원단과 함께 지난 28일 부안군 변산면에 거주하는 돌봄대상자 어르신 3곳에 노후된 방충망, 도배 등을 교체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혼자 어렵게 사시는 돌봄대상자 어르신들을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요청하신 노후 된 방충망과 오래돼서 곰팡이가 핀 도배지를 지역 업체와 함께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농업인행복센터'는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농협중앙

회가 운영하는 고령농업인 전용 콜센터로 2018년 3월부터 '농촌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돌봄 어르신 중 취약 농가를 선정하여 종합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 등 정서적 위로는 물론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도배, 장판, 페인트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농업인행복센터를 통해 현장지원단과 봉사자들이 찾아가 말벗도 해드리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했던 것도 해결해 드려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최근 봉동읍에 위치한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 소외계층 200여명을 초청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주먹밥에 사랑 한가득 담아

전북은행봉사단, 완주군 소외계층 초청 이웃사랑 실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봉동읍에 위치한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 소외계층 200여명을 초청 '제2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임직원의 급여 1%를 성금으로 마련하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2015년부터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임재원 부행장을 비롯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10여명, 완주군 정철우 부군수 등 약 20여명이 참여해 점심으로 제공할 주먹밥, 떡, 과일을 준비하여 배식봉사활동을 펼쳤고, 식사 후에는 기념품을 전달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은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점심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를 향한 전북은행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매해 임직원의 급여 1%를 기부하여, 소외계층에 점심식사를 제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한가득 주먹밥',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100엔토링 문화체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이스타항공, 외국인 대상 '지하철 자유이용권' 개발 참여

이스타항공이 지난 28일 서울교통공사 본사 스마트안전상황실에서 서울시 지하철과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자유이용권'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 서울신교통카드 송재찬 대표이사, 이스타항공 최종구 사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와 편의 증대를 위해 서울 지하철 이용과 주요 관광지 입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상품판매 등에 공동 참여하게 된다.

'지하철 자유이용권'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명소가 많이 위치한 지하철 1~9호선 구간(서울교통공

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운영구간)을 유효기간동안 무제한으로 가능한 교통·관광 패스다.

올해 12월 외국인 관광객용 지하철 자유이용권 1일권과 3일권이 시범 출시될 예정이며, 이스타항공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과 연계한 판매 및 다양한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에 참여한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기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최종구 사장은 "한국을 찾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위한 새로운 상품개발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가 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서울시 지하철과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이 국내 항공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